

#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 적용 관련 1차 자문회의 결과보고

(감사팀, '22. 3. 7.(월))

## □ 목적

- 전문가 자문을 통한 내실 있는 윤리경영 표준모델 적용

## □ 회의개요

- (일시) 2022. 2. 18.(금), 10:00 ~ 13:00
- (장소) 서울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(19층) 회의실
- (참석자) 총 4명
  - (외부전문가) 이○○ 박사(서울시립대)  
※ 現 청렴·인권정책협의회 위촉위원
  - (윤리감사부) 신○○ 부장, 강○○ 과장, 임○○ 대리
- (주요내용)
  - 공공기관 윤리경영표준모델 관련 주요내용 자문
  - 표준모델 6대 핵심요소 적용을 위한 체크리스트 등 자문

## □ 주요 자문사항

-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기존 경영프로세스를 윤리경영표준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윤리경영 방식을 적용하여 기관별 경영프로세스를 전환하도록 권고
- 윤리경영표준모델 적용을 위한 '컴플라이언스'의 개념 이해 필요
  - 윤리경영의 '컴플라이언스'란 직원 및 이해관계자들이 기관 운영, 청렴정책, 노인일자리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예방하고 방지하는 활동

- 윤리경영은 비위, 부패 등을 사전 예방하는 성격이고, 감사는 비위, 부패 등을 사후 적발하는 성격이므로 윤리경영과 감사를 분리하고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목적에 부합

- 기관장 의지, 체계 구축(정기적인 보고 등), 위험 식별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직의 특성과 상황에 적합한 윤리경영표준모델 적용 권장
- 유사모델인 ISO 37301 준법경영시스템 검토 등 제안
- 윤리경영은 내·외부 이해관계자의 인식개선을 위해 모호한 개념(청렴, 갑질 개념 등)을 명확하게 규정하고, 규범화 및 내재화 등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주의환기를 위한 체계 마련 필요
  - 향후 내부직원 교육 운영 시 워크숍 등을 통해 부패사태(우리원 또는 타기관)를 예방하기 위해 논의하고 생각할 수 있는 토론 등의 프로그램 운영 권장
  - 기관 내부에서 발생하는 비위 및 부패 사건 등이 재발하는 것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공식화하고 공유하는 체계가 필요
- 윤리경영표준모델 적용을 위해 한시적인 TF팀 운영은 한계가 있고, 윤리경영 체계 정착을 위한 상설기구 필요

## □ 향후계획

- 윤리경영표준모델 체크리스트 검토 등
- ISO 37301 준법경영시스템 적용 방식 검토 등
  - 반부패 등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다수 보유한 컨설팅 업체 섭외
  - 윤리경영표준모델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각 파트별 전문가 섭외 등
- 윤리경영표준모델을 적용한 2022년 부패방지시책 추진 계획 수립